

# 판소리·산조...남도 소리 일군 주역 미래 무형유산으로 가꿔야

## 新 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15>

### 제4부-일상에 서린 민족문화의 원형

③ 남도의 명인 명창을 찾아서

김세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책임교수

시간의 흐름은 날이 붉은 꽃 푸른 잎이 우거지는 때다. 가고 오고 또 보내고 맞는 것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순리지만, 참 빠르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서 그런지 옛 판소리 명창들이 공도난이(公道難離) 백발을 한탄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 부르던 백발가(白髮歌)며, '아시라 세상사 쓸 곳 없다'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 부르던 편시춘(片時春) 단가 한도 막이 떠올려진다. 더불어 이런 음악을 늘 함께하며 살다간 남도의 명인 명창(名人名唱)은 누구누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된다.

세상 사람이 알고 있듯이, 남도는 유독 명인 명창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왜일까? 춘향가 중에서 춘향을 데리러간 방자의 노래 대목에서처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다"는 방자의 산세 풀이와 같이, 기이한 모양의 바위와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남도의 산세 정기(精氣)가 판소리와 산조와 시나위 같은남도 음악을 생성할 수 있었던 재주를 부여하였던 것일까? 아무튼 유네스코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에 대한 우수성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산조(散調) 또한 남도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져 한국 음악에 미친 영향만 봐도 남도에 재주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세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뛰어난 명인 명창이라도 남도에서 소리하고 연주하기를 제일 겁났다고 한다.

이는 실제 남도에 명인 명창이 많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소리가 흘러가야 할 길의 옳고 그름을 귀로 듣고 평가할 줄 아는 귀명창이 더 많아서 탄탄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쉽게 무대에 설 수 없었다는 조심스런 말일 게다. 그렇다면 이런 남도 음악은 어떤 배경에서 생성할 수 있었을까? 주지하듯이, 남도 음악은 신정(神聲)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쉽게 말해서 신정은 무(巫)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친목과 결속을 위해 조직한 자치단체이다. 이들은 무업(巫業)에 종사한다는 구심점을 가지고 스스로 기강을 세우고 단합하여 무업에 수반되는 기예(技藝)를 독려하고, 모범적인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규율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기능을 겸비한 전

국 규모의 무당 조직체였다. 이런 신정조직이 남도에는 광주신정을 비롯하여 나주신정, 능주신정, 장흥신정, 진도신정 등이 있었다고 한다. 곧 남도의 음악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이곳을 본거지로 하여 전설 속의 요순우탕(堯舜禹湯) 문무주공(文武周公)의 덕행이며, 영웅호걸(英雄豪傑) 기개세며, 우에 있던 흥보며, 육심 많던 놀보며, 효성 깊은 심청이며, 대쪽 같은 굳은 절개 자랑하던 춘향을 우라들 가까이 전담해 주었으며, 우스갯짓과 금방이라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재조를 부리면서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던 기예(技藝)며, 산조며, 시나위 등 남도의 음악을 잉태하고 전승시킨 전당으로써, 신정은 한국 음악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능주 신정이 눈길을 끈다. 왜냐하면 능주는 화순, 동복을 한 생활권으로 하여 순천, 여수, 구례, 광양을 비롯한 전라 좌도와 강진, 해남, 목포, 영암, 나주를 비롯한 전라 우도 사이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으로는 곡성과 승주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나주와 남평이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보성과 장흥이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광주에 접해



### 기에 독려 무당 조직체 神廳, 남도 음악 잉태 본거지

### 임방울·서편제 기틀 김재만·성창순·가야금 한숙구 등

### 한국 음악에 영향 미친 재주꾼 가계 정리 등 서둘러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활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능주의 옛 이름이 능성(綾城)이었는데, 인현왕후(仁獻王后)의 관향(貫鄕)이 능성구(綾城具) 씨라 하여 인조 10년(1632)에 능주목(綾州牧)으로 승격된 이후, 목사공에 걸맞게 많은 관기(官妓)들이 이곳 능주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임방울 명창이 평상시 애창한 것으로 알려진 단가 호남가의 사설 가운데 "풍속은 화순이요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아니 용안치며, 능주의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인가"에서 능주의 붉은 꽃이란 능주에 기예와 미모가 뛰어난 기생들이 많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능주는 관기의 출현과 더불어 관정에서 필요한 삼현육각 등 기악에 능한 예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기예를 연마하고 전승시키는데 능주 신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신 신정과 화순, 동복지역에 터전을 둔 판소리 명창으로는 제일 먼저 김재만을 들 수 있다. 김재만은 1865년경 능주에서 태어나 박유전-이날치를 잇는 서편제 명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간에는 김재만을 일컬어 속굴명창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속굴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속굴에 대하여 능주신정 마지막 후예인 조도화는 김재만이 능주를 잠정리에 있는 속고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굴명창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답문을 펴고 있어 김재만이 능주를 태생이란 점을 가늠할 뿐이다.

김재만은 본래 성음이 탁하고 음악적 재질이 뛰어난 것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도암 불화사 토굴에서 각고의 독공으로 선듯하면서 우렁찬 소리성음을 얻어 기존의 소리가락에 기교를 더하여 짝 짝 맞춘 듯 한 짜임새 있는 장단에 소

리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애간장을 다 녹여 내린다는 평가와 함께 당대 최고의 소리꾼으로 특히 심청가를 잘 불렀다 한다.

이후, 김재만의 뒤를 박화섭, 한성태, 신용주, 박종원, 김정문, 공창식, 박동실 등이 후기 7명창 시대를 열었으며, 다시 박화섭은 박후성을 후계자로 두었으며, 한성태는 그의 3남인 한승호가 대를 이었다. 김정문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소리를 두루 섭렵하여 김준섭, 강도근, 박록주 등에게 이어졌고, 공창식은 공기남과 조몽실, 조상선에게 이어지고, 박동실은 김소희, 한애순, 조해숙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김재만의 소리는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의해 후세에 이어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서편제의 판소리 법체가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지만 김재만은 난향이라는 기생과 함께 강진으로 이거하여 2년 남짓을 살지 못하고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며, 현재는 그의 손자 김성권이 명고로써 조부의 명성을 잇고 있다. 이 외에도 명창 중에는 성원목, 성우준, 성차욱, 박기재, 박기홍, 김준섭, 김억순, 김동문, 박봉선, 김막동, 이진영, 정명수, 조경화, 전일도, 박화기, 정명암, 조명수, 백현옥, 정명옥, 하벽도, 염금달, 박영순, 신평일, 박농월, 박농주, 박소우, 하벽산, 유일호, 정옥진, 정행옥, 신금월, 조순애, 박봉덕, 임선례, 박금선, 장양금, 김형규, 하재욱, 김행욱, 공대일 등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활동한 성창순, 성우향, 박송이, 박조선, 조순애, 공옥진, 김일구 명창 등이 이 지역의 옛 명성을 빛냈다.

한편, 기악의 명인으로는 동복의 한숙구 명인을 들 수 있다. 당대 가야금의 명인으로 알려진 한숙구는 가야금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와 쌍벽을 이루었던 것으로 전하여지며, 그의 재능은 아들 한수동에게 전해져 가야금 산조의 일가를 이루었으나, 한수동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겨우 이양 출신인 정남희에게 전해져 썼으나, 정남희 역시 월북하여 그의 맥이 끊기게 되니 정남희에게 월북하기 전에 배웠던 서공철과 조카 정달영이 그의 유음을 되찾아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를 가늠해 할 따름이다.

그러나 한숙구를 비롯해 한수동, 한성태, 한귀호, 한주환, 한영호, 한일섭, 한갑득, 한승호, 한세현 등 한씨 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문고의 명인으로는 김연수와 임석운, 오철남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금의 명인으로는 오갑순의 부친 오재환과 오진석, 한주환, 김동표 등을 들 수 있으며, 피리의 명인으로는 성우향의 부친 성차욱과 조송문, 김대자, 김유복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쟁과 태평소의 명인으로 한일섭과 김흥순, 정창국, 김용철 등이 있으며, 가야금 명창에는 박춘섭과 정달영이 있으며, 고수에는 조상엽, 주봉현, 주응조, 성원목, 김동준, 문남구를 들 수 있다. 또 시조와 가곡을 잘 불렀던 김산옥, 신초월, 양학, 양농주, 김규열이 있으며, 발탈에는 조영숙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능주 신정과 화순, 동복 등지에서 배출된 명인 명창들이 속하다.

앞으로 이분들의 가계 정리와 남도 음악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다듬어서 무형문화 보존 전승은 물론 미래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무거움을 느낀다.



-한국 음악학 박사  
-현) 문화재청, 서울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위원

### ■ 남도의 명인들

김재만 박화섭 한성태 신용주 박종원 김정문 공창식 박후성 한승호 김준문 김준섭 강도근 박록주 공창식 공기남 조몽실 조상선 박동실 김소희 한애순 조해숙 김성권 성원목 성우준 성차욱 박기재 박기홍 김준섭 김억순 김동문 박봉선 김막동 이진영 정명수 조경화 전일도 박화기 정명암 조명수 백현옥 정명옥 하벽도 염금달 박영순 신평일 박농월 박농주 박소우 하벽산 유일호 정옥진 정행옥 신금월 조순애 박봉덕 임선례 박금선 장양금 김형규 하재욱 김행욱 공대일 성창순 성우향 박송이 박조선 조순애 공옥진 김일구 한숙구 한수동 정남희 서공철 정달영 한숙구 한수동 한귀호 한주환 한일섭 한갑득 한승호 한세현 김연수 임석운 오철남 오갑순 오재환 오진석 한주환 김동표 성차욱 조송문 김대자 김유복 한일섭 김흥순 정창국 김용철 박춘섭 정달영 조상엽 주봉현 주응조 김동준 문남구 김산옥 신초월 양학 양농주 김규열 조영숙 성우향 한영호

### 전라도 들여다보기

#### 필문 이선제와 왜고정수

김형주

필문(筆門) 이선제(李先齊·1389~1454)는 광주 대촌동 원산마을 출신으로 자는 가보(家父),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조부는 밀직제학 홍길(弘吉), 부친은 일영(日英)이며, 다섯명의 아들을 두어 오원(五元)이라 불렀다.

1419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세자빈격을 지낸 후 1431년에 집현전 부교리로 춘추관기사가되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첨지중추원사·병조참의를 거쳐 1444년에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 1446년 예조참의를 거쳐 잠시 삼의사제조(三醫司提調)를 지냈다.

이듬해 호조참판에 올랐고 1448년 하정사(眞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50년 정인지 등과 '고려사(高麗史)'의 개수작업에 참여할 때는 사관(史官)으로서, 앞서 정도전·윤소중 등이 편찬한 '고려사'가 당시 이색·이인복이 지은 '금경록(金鏡錄)'에 너무 의거한 탓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하여 바르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어 서북지방의 군제(軍制) 정비, 야인의 객관(客館)을 별치(別置)할 것, 어

염세(魚鹽稅)를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충실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단종이 즉위한 뒤에는 경창부윤(慶昌府尹)이 되어 전염병 방지에 전력하였다.

관직을 마치고 향리로 돌아와서는 후진 양성과 향약보급 및 향촌 교화활동에 매진하였으며, 사후 이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에 추증되고 강진 수암서원, 화순 오현당, 죽산사에 배향되었다.

이선제부조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앞마루를 둔 겹처마 맞배집이다. 공포는 초익공(初翼工)으로 상단에 용머리 장식을 하였고, 막들초석 위에 정면은 민흘림기둥을 세우고 나머지는 사각기둥을 세웠다. 삼문과 양측면의 맞담 위에 기와를 얹어 빙 둘러났다.부조묘는 포총사 뒤쪽 산기슭에 있으나 원

래의 위치에서 50m 왼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사당 입구에는 신도비가 서있으며, 뒤편의 언덕에는 필문의 묘와 묘비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에는 필문선생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600여년의 노거수가 위용을 자랑한다. '왜고정수'(掛鼓亭樹)라 불리는 버드나무로 나무가 죽으면 가문도 쇠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이선제의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나무에 북을 걸어 놓고 축하연을 베풀었기 때문에 '왜고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589년 이른바 가축옥사(加丑獄事)라 불리는 정여립모반사건(鄭汝立謀反事件)이 일어났을 때, 동인의 영수이며 5대손인 동암(東庵) 이발(李潑)과 일

가족이 폐족을 당하면서 나무도 고시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이발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다시 새 잎이 돋아나면서 가문의 중흥이 시작되었다는 일화가 내려온다.

광산이씨는 순백(尙白)을 중시조 하여 조선조기 이선제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호남의 명문거족이었으나, 동인과 서인의 대립하는 가운데 기축년의 병고로 인해 가문이 흉비박산하는 큰 재앙을 입었다. 이제라도 동암과 송강 정철의 후손이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어떨까 싶다. <광주시민신문특별팀 학예실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취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